

논문접수일 : 2012.12.20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6

미국 사회에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패션 이미지

Fashion Images of Cholo Style Appeared on United States of America

함 연 자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Younja Ham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1. 서론

2. 출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 출로의 개념과 용어정리
- 2.2. 출로의 역사적 배경
- 2.3. 출로의 문화적 배경

3.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에 따른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

- 3.1. 폭력적 이미지
- 3.2. 고스 이미지
- 3.3. 스포티브 이미지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문화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인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로의 개념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1990년대 이후 대중 매체에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분류한 결과는 폭력적 이미지, 고스 이미지, 캐주얼 이미지로 나타났다.

폭력적 이미지는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과 공격성이 내포된 헐렁한 실루엣과 오버사이즈의 작업복, 비니와 반다나 등 불법을 암시하는 패션을 통하여 나타났다. 고스 이미지는 '라틴적인 것'을 명시하는 역사성과 공포성을 내포하는 모티브들이 문신과 프린트로 표현된 패션으로 주류 사회의 미적 기준에 반하는 현실과 괴리된 기괴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스포티브 이미지는 라티노의 위상 변화와 함께 차별 받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계급의식을 극복한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건강한 아웃도어 스포릿'과 유색 여성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는 관능성을

내포하는 자유롭고 경쾌한 스타일의 캐주얼 웨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출로 스타일은 사회와 관습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출로 스타일, 폭력적 이미지, 고스 이미지, 스포티브 이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holo fashion style and images appeared on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The images of Cholo fashion style are violent image, goth image, and sportive image. Violent image has been involving loose silhouette working cloth, black beanie and bandana implied working class identity and aggression toward Anglo-American society. Goth image has been involving tattoo or prints of religious or grotesque motives in black & white color implied race identity and anti-classic taste. Sportive image has been involving casual wear in various vivid colors implied healthy out door spirit and yellow women's eroticism. In Conclusion, Cholo fashion style is based on desire for freedom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Keyword

Cholo style, Violent image, Goth image, Sportive image

1. 서론

다문화 시대인 오늘날의 패션은 간단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션의 창조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가치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중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복식체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 변형하고 새롭고 독특한 하위문화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젊은 이들이 서로의 스타일을 공유하며 자생적으로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류 패션에서는 백인 위주의 획일화된 미의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유명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다양한 인종 및 체형의 모델을 세우고, 소수 문화를 테마로 작업한 의상들이 선보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 문화의 문화적 특성들이 강조된 의상들은 개별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괄적으로 에스닉 패션으로 치부되고 있다. 태혜숙(2009)에 의하면 소위 '에스니시티(ethnicity)'는 각 인종의 문화적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소수 인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위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앵글로 색슨 족 외의 '인종 문화성'은 그동안 경멸받고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의 가부장제에 입각한 가치관의 결과이며, '다인종 다문화 관점'에서 보면 백인 이외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성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다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며 세계의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2005년도 인구구성통계에 의하면 백인은 미국 총 인구의 67.6%, 히스패닉 15%, 흑인 13.4%, 그리고 아시아계가 5%를 차지한다. 라틴계는 인구 구성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 비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들 문화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제1의 소수민족 세력으로 미국 사회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선거, 2007). 주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흑인이 아니라 라틴계다. 특히, 라틴계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멕시코계는 유색인종 중 아프리카 흑인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백인에 의한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문화로서 흑인들의 하위문화는 많이 연구되었던 반면

라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편이다. 한편, 대중매체에서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문화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라틴노의 패션에 주목하여,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2003년에 이미 흑인들의 하위문화로 시작되어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널리 유행한 힙합(Hip-Hop)에 이어 새로운 스트리트 스타일로 멕시코계 미국인을 의미하는 출로(Cholo) 스타일을 소개한 바 있고,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패션정보에서는 2010년대 초반 젊은 층의 트렌드 중 하나로 라틴아메리칸의 하위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시대의 패션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그 동안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미국 내 멕시코계의 정체성과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패션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출로 스타일에 대한 고찰을 위해 출로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 현실과 문화적 특성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 매체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각각의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출로 스타일이 대중 매체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로 스타일의 시각 자료는 출로의 삶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American Me'(1992), 'Mi Vida Loca(My Crazy Life)'(1993), 'Napoleon Dynamite'(2004), 'La Mission'(2009), 'Bring it On: Fight To The Finish'(2009) 등 5편의 영화와 Down AKA Kilo의 'Lean Like a Cholo'(2007), Gwen Stefani의 'Luxurious'(2004)와 'Hollaback Girl'(2004), Fergie의 'London Bridge'(2006)와 'Glamorous'(2006) 등 5편의 뮤직 비디오, 그리고 '출로'와 '출로'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주제어들로 검색된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출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출로의 개념과 용어정리

출로의 사전적 정의는 스페인계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가 섞인 라틴 아메리카인, 또는 젊은 노동계층의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American)을 의미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하위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남서부 지역 멕시코계 갱단에 소속된 사람 또는 갱단의 문화와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1920년대에 불법적인 폭행에 스스로를 지키고자 조직되기 시작했던 라티노 갱들은 독특한 스타일과 함께 받은 영어고 받은 스페인어인 '칼로(caló)'라는 독특한 언어로 말하였다. 출로는 칼로의 속어로 사용되었지만, 1960년대 민족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자부심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미국 주류 영어에 스며들게 되었다. 멕시코계 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로는 '호미(Homie)', 또는 '홈보이(Homeboy)'가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용어는 연구대상을 이해하고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단락에서는 연구에 앞서 미국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 메스티소(Mestizo): '섞인(mixed)'이란 뜻으로 스페인인과 중앙, 남, 또는 북미 원주민의 피가 섞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멕시코 사람의 대부분은 메스티소이지만 약 30퍼센트는 순수 인디언에 가깝다.

· 치카노(Chicano): 치카노의 사전적 정의는 멕시코계 미국 시민을 의미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고조를 이루었던 '차카노 운동'을 계기로 멕시코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자긍심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치카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인식을 재천명함으로써 부정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스스로를 '치카노'로 자랑스럽게 밝혔다. Macías(2008)에 의하면, 하층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치카노는 1940년대 '파추코(pachucos)'와 차별되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의미하였고 1960년대 들어 정치적 민족 자결권, 동화정책주의에 대한 반감, 고유의 민족 유산, 그리고 사회경제적 커뮤니티의 권한 강화 등을 주장한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었다.

· 라티노(Latino): 라티노는 라틴 아메리칸(Latin American)을 의미하며, 라틴 아메리카 출신 사람 또는 그 후손을 지칭한다. 멕시코 사람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와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히스패닉(Hispanic)'이라는 용어와 유사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lliotte(1991)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제

일 많은 수의 미국 이민자 비중을 차지하는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1960대에 이후 스페인적인 것을 거부하는 점과 관련해 히스패닉이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대신 라티노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밖에 '멕시코노(Mexicano)', '멕시코칸(Mexican)'은 멕시코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고, '인종(race)'이란 의미의 스페인어인 '라 라사(Ra Laza)'는 미국 내에서는 치카노, 또는 멕시코계 메스티소 뿐 아니라 북미 원주민의 피가 섞인 다른 라틴 아메리칸 메스티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내 거주하는 멕시코계 인구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시각 자료를 찾는데 출로 뿐 아니라 위의 용어들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2.2 출로의 역사적 배경

김형인(2009)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민들의 후예이지만 경제적 향상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일찍이 이민 와서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획득한 영국계를 포함한 서북 유럽계는 19세기 말 이후 밀려드는 남동 유럽인, 유대인, 중국인이 자신들과 인종·종교·언어·가치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시작하였고 1세기 동안 서유럽 출신 국가 이외의 이민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였다.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19세기 미국이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동부 도시들이 발전하고 공장들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멕시코 국경을 침범하여 '텍사스'라고 알려진 영토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무리가 면화를 경작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미국 남부에서 온 노예 소유주였다. 1930년에 멕시코 정부가 노예제도를 불법화하고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자 텍사스를 '미국화'하자고 주장하였던 미국인들은 당시의 갈등을 '스페인·인디언·흑인종이 뒤섞인 잡종'과 '앵글로 미국 인종의 문명' 사이의 갈등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선포했다. 결국 멕시코의 텍사스는 1845년에 미합중국에 병합되었고 이후 멕시코 땅에 들어왔던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멕시코 사람들을 게으르고 낭비가 심한데다 계산 능력이 없으며, 먹고 마시는 일과 춤, 축제에만 열중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폄하하고 무시했다. 나아가 백인 역사가들은 앵글로색슨 북방 인종과 문명이 라틴 인종과 스페인·멕시코 문명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서 다시 '스페인' 여성을 낳

만화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행이 생겨났다. 캘리포니아인들 대다수가 스페인·멕시코·인디언 종족이 복잡하게 혼합된 메스티소로서 국적도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엘리트 지주 출신 여성들은 유럽, 유럽·미국인과 결혼했을 때 자신들이 '스페인' 사람인 양했고, 하층 출신 백인 여성들을 '멕시코인'이라고 불렀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멕시코 내부에서 일어났던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피폐한 농촌 현실에서 기인했다. 1910년 멕시코 혁명과 뒤이은 내란의 연속으로 가난과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던 멕시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으로 넘어갔다. 1924년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미국에 들어온 멕시코인 숫자는 87,648명이었는데 이것은 동남부 유럽 이민자 수의 45퍼센트에 달했다. 값싼 노동에 대한 미국의 요구 때문에 치카노 인구를 허용했으면서도, 백인 사회는 치카노들이 백인중 중심의 사회적 경계를 침입한다고 생각했다. 치카노의 높은 인구 증가율도 위협이었지만 치카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에서 혼혈아가 증가하는 현상도 큰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미국 남서부의 멕시코화'에 맞서서 인종적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졌고, 멕시코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요구는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 큰 공명을 얻었다. 백인 노동자들은 치카노를 일자리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보고 국경을 폐쇄하라고, 더 나아가 멕시코인들의 고용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멕시코인들은 '값싼 노동'일 뿐 '완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Oboler(1995)에 의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서 강화되던 국가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라티노들은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적 느낌을 제공 받았고, 인종적 차이, 언어, 습관, 피부색의 차이에 의해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저임금 구조에 고착되어 뿌리 깊은 착취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착취의 경험이 60년대 중반의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 하여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 치카노 운동은 치카노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시키고, 문화를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수세기 동안 지배 담론에 의해 라티노의 정체성을 퇴행적이고, 열등하며, 게으른 것으로 특징화한 것에 맞서 민족주의의 자의식적인 도구로 스스로의 기원을 만들어냈다. 젊은

도시 치카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고대 멕시코의 고대문명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앵글로 색슨의 주류 사회에 맞서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자극했다. 다시 말해, 성, 계급, 혹은 지리적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지역적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합할 상징적 결합체를 모색한 것이다. 멕시코라는 출신 지역의 유산에 퇴행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유럽이주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임을 주장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치카노들은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주류 사회에 대한 동화라는 패러다임과 단절하면서, '아스틀란(Aztlán)'이라고 하는 신화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라사(razas)'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치카노 민족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와 치카노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인 소외의 문제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었지만, 젊은 도시 라티노들 사이에서 기존의 백인 중심적인 미국사회에의 동화라는 문화적 '용광로'에 맞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나름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Reyes & Waldman(2009)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히스패닉의 시대(Decade of the Hispanic)'로 지칭하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히스패닉 마켓(Hispanic Market)'이 급부상 하였다. 이러한 관용구는 히스패닉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정치가나 활동가들의 궤기 대회용 구호가 되었고, 그 메시지는 작고 큰 회사들, 광고주들, 라티노 출신이 아닌 정치가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교육가들을 겨냥하였고, 정치적으로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는 많은 수의 치카노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정치적 관료로 당선되는 등, 마침내 히스패닉들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2.3. 출로의 문화적 배경

Elliotte(1991)에 의하면, 미국 내 멕시코인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르면 '스페인어(Spanish)'이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Columbus가 도착하기 이전의 멕시코에서 찾으려 하며 치카노로 불리길 원한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으면서 민간 의술을 시행하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공동체 '바리오(barrio)'에서 살고 있다. 바리오는 LA, Caracas와 Santo Domingo와

같은 큰 도시 주변의 빈민가를 의미한다. 히스패닉 아메리칸은 바리오에서 일, 거래,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상징적인 정신적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바리오들은 지역의 장인(craftman)에게 필요한 공간과 노동자 계층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바리오는 수세기 동안 도시 속에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워졌다. 많은 수의 히스패닉들은 바리오를 떠나길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바리오는 그들에게 마치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바리오 주변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 한다. 이러한 효과는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민족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면 범죄를 우려한 백인 중산층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히스패닉은 시장과 고국의 음식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바리오를 떠날 이유가 없으며, 이민자는 바리오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미혼모가 된 젊은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들의 치열한 삶을 소개한 영화 'Mi Vida Loca(1993)'의 첫 장면에 소개된 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바리오에서 고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다.

이처럼 출로의 사회적 삶의 중심에는 이웃 또는 바리오가 있었는데, 외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 질지라도 고립된 소수 민족 집단의 삶의 터전으로서 바리오는 거주민에게 특히, 갱의 멤버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40년대 멕시코 갱 출신 이었던 El Chava가 "인종차별주의와 가난이 갱을 만들어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던 배경에는 그 시대의 라티노들이 앵글로 아메리칸들에 의해 진정한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언어와 피부색 때문에 사회의 밑바닥으로 격리 된 채 자신들만의 아메리카니즘을 정의했던 사실이 있다. 바리오 안에서 라티노 갱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외부 사회의 가치 기준과 관계없는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이마 위에 높이 빗어 올린 올백 형태의 '퐁파두르(Pompadours)' 머리 모양과 바지의 허리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테일러메이드 수트로 특징지어지는 '주트 수트(Zoot Suit)'를 착용하는 독특한 외양, 반은 영어고 반은 스페인어인 '칼로'라는 언어의 사용, 자동차를 차체가 지면에 낮게 깔리도록 개조하고 많은 액세서리와 페인팅으로 외관을 공들여 장식하는 문화인 '로우라이더(lowrider)', East LA의 그라피티(graffiti)와 같은 독특한 갱스터 문화

를 만들어내었다. 1940년대의 '주트 수트' 문화는 1950년대 '파추코', 1960-70년대 이후의 '출로' 또는 '홈보이'의 문화로 계승되고 있으며, 라티노 갱들의 전통과 말하는 언어, 의복 스타일로부터 글씨체에 이르기 까지 독특한 코드로 표현된 그들의 미학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불법적인 '바이커들(bikers)', 1970, 80년대 LA '펑크(punk)' 등 멕시코 갱들은 지역적인 갱 문화와 스타일을 창조했고, 1980년대 이후 흑인 갱들은 홈보이들의 드레스 코드와 로우라이더의 스타일까지 모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창조했다.

3.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에 따른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

1990년대에 들어 Spanish Harlem, East LA, Chicago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있는 바리오에서의 삶이 뮤직비디오와 영화 등 전국적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빈번하게 소개되었다. 195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멕시코 마피아의 출현에 관한 연대기로 미국에서 치카노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담은 영화 'American Me'(1992), 미혼모가 된 젊은 멕시코계 여성들의 치열한 삶을 소개한 영화 'Mi Vida Loca(My Crazy Life)'(1993)을 시작으로 라티노 갱의 문화는 영화, 'Napoleon Dynamite'(2004), Down AKA Kilo의 뮤직 비디오 'Lean Like a Cholo'(2007), 비디오게임 'Grand Theft Auto: Vice City Stories'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소개되었고, Gwen Stefani의 뮤직비디오 'Luxurious'(2004)와 'Hollaback Girl'(2004), Fergie의 뮤직비디오 'London Bridge'(2006)와 'Glamorous'(2006) 에는 출로 뿐 아니라 여성을 의미하는 '출라(chola)'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최근의 영화로는 'La Mission'(2009)에 로우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출로 스타일이 소개되었고, 'Bring it On: Fight To The Finish'(2009)에 출로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한 라티노 갱의 집단이 등장한다. 이 밖에 출로/출라, 홈보이/홈 걸, 치카노/치카나, 라티노/라티나 등의 검색어로 조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를 파악하면 폭력적 이미지, 고스(goth) 이미지, 스포티브(sportive) 이미지로 구분된다.

3.1. 폭력적 이미지

Arnold(2001)에 의하면 평범한 방법을 통하여 지

위와 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아웃사이드의 집단에 대한 대안적인 충성심과 결합된 억눌리고 절제된 폭력성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초창기의 멕시코계 갱스터는 예리한 테일러링으로 통제된 외장과 화려한 장식의 주트 수트를 착용하여 대단한 관심과 함께 개인의 힘을 기반으로 창조된 개인의 규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환상을 현실화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즉 자신들만의 새로운 규칙들을 창조하고, 사회와 도덕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집단적으로 통제된 스타일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1990년대 멕시코계 갱스터의 삶을 다룬 영화와 노골적인 가사를 노래하는 갱스터 래퍼(rapper)들의 뮤직비디오에는 공격적인 외모와 타협 없는 일률적 복장으로 그들의 반사회성과 분노를 표출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전형적인 패션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Dickies, Ben Davis, Dyes One, 그리고 Levis 등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밀위가 길고, 바지통이 넓은 헐렁한 실루엣의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길이 또는 바닥까지 닿는 긴 길이의 배기 바지, 실제 사이즈보다 큰 오버사이즈의 라운드 넥의 티, 스트라이프 무늬의 폴로 티(polo's), 후드 티, 운동 유니폼, 그리고 맨 위의 단추만 채워



[그림 1] East LA의 갱스터 스타일.

그림출처: <http://www.banderasnews.com>



[그림 2] 집단성을 강조한 패션.

그림출처: <http://felonyfacts.blospot.kr>

입는 형식의 플레이드(plaid) 셔츠로 구성된다. 의복은 크고 헐렁하게 입는 대신 신발은 Nike Cortez 와 Lugz, Converse 브랜드의 운동화를 딱 맞게 착용하고, 반바지를 입을 경우는 무릎까지 오는 흰색 양말을 함께 착용한다. 소재는 치노(chino)와 플란넬(flannel) 등 실용적인 것이지만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함을 유지한다. 색상은 카키, 블랙, 블루,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 등 튀지 않는 기본적인 색상들이 주로 사용되어 새하얀 흰색의 언더셔츠와 양말을 강조한다. 액세서리로 밀리터리 벨트를 착용하기도 하며,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매우 짧게 깎는 스타일이 자주 나타나지만, 뒤로 매끄럽게 넘기는 전통적인 스타일도 지속되고 있고, 때때로 헤어네트(hairnet) 또는 눈 바로 위까지 끌어내린 검은 색 비니(beanie), 반다나(bandana)를 착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출로 갱스터 패션의 전형으로 멕시코계 미국인의 대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과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공격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스타일로 볼 수 있다. 고급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작업복을 오히려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여긴다는 점은 작업할 때 막 입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는 작업복을 셔츠는 풀을 먹여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고 바지는 주름을 잘 잡아 입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오버사이즈의 옷은 몸의 윤곽을 더 크게 하여 위협적인 제스처를 만들고 범죄자를 연상하게 하는 짧은 머리, 검은 색 비니, 반다나 등은 갱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림 3]의 복장은 거추장스러운 요소를 모두 제거한 최소한의 옷과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발에 딱 맞게 끈을 조여 신는 운동화로 발길질을 할 때나 도망갈 때를 대비한 듯 '싸울 준비를 마친' 긴장감을 제공한다.

대중 매체에 나타난 출로의 전형적인 스타일로서



[그림 3] 싸울 준비를 마친 복장.

그림출처: hollywoodtattletale.com

폭력적 이미지는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회 계층 출신들로서,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이 자신들 고유의 집단 충성심을 형성하는 그들만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합법과 불법적인 스타일이 교차되는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고스 이미지

고스 이미지는 공포, 우울함과 어두운 성향의 고딕(Gothic) 감수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류 사회의 미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클래식의 굿 센스(good sense), 굿 테이스트(good taste)에 저항하는 자의식의 반란이자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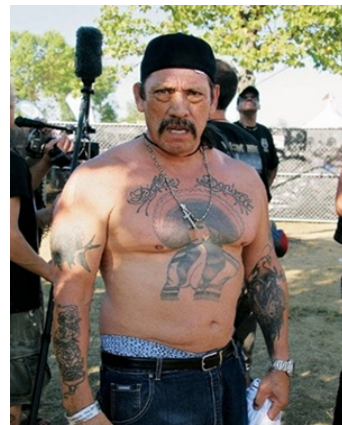
교회, 성모 마리아, 사제, 피라미드(pyramid),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마리아치(mariachi) 밴드, 고딕풍의 글자체 등 일련의 멕시코 문화에서 친숙한 주제를 벽화 예술, 스프레이 아트, 그리고 그래피티로 민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미술 분야의 활동들이 패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게 되었다. 고스 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의 조형적 특징은 십자가, 악마, 해골, 기도하는 손, 과달루페의 성녀(Virgin of Guadalupe), 그리고 고딕풍의 글자체가 문신과 문신을 응용한 문양의 자수, 또는 프린트가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느낌으로 의복에 표현되는 것이다. 출로 스타일의 고전적 요소인 헐렁한 치노 바지와 비니, 반다나를 착용하고, 여성의 경우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스판덱스(spandex) 드레스, 타이트한 브라(bra) 탑과 속이 비치는 네트(net) 소재의 탑을 겹쳐 입기도 한다. 색상은 고스의 전형적인 색상인 블랙을 위주로 하며, 플랫폼 부츠, 해골, 가시 등을 모티브로 한 하드 코어풍의 장신구 또는 목주 목걸이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로 장식을 하고, 머릿기름을 발라 넘



[그림 4] 기괴함을 강조한 패션.
그림출처: <http://statigr.am>

겨 묶은 헤어, 입술 라인과 눈썹 라인을 강조한 화장, 붉게 바른 긴 손톱 등 페티시적인 요소 등이 표현된다. 갱스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적 이미지를 강조한 출로 스타일이 주로 남성의 패션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해 고스 이미지를 강조한 출로 스타일은 [그림 4]과 같이 여성의 패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김고운 & 장동림(2006)에 의하면 고스 이미지는 공포성을 강조하는데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내부에 억압된 채 간혀있던 욕망, 불안의 요소들을 일시적 이나마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공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는 악으로 규정되지만, 죽음을 거부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고스 스타일은 오히려 반대로 죽음의 형상을 통해 영원함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해골이미지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자 동시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불안감에서 기인하며, 피, 십자가, 악마 등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을 등장시킴으로서 공포감을 준다. 공포성은 표현에 있어 과장과 왜곡이 일어나는데, 출로의 문신이라는 신체에 가해진 훼손과 이를 연상



[그림 5] 역사성 표현의 문신.
그림 출처: <http://hotbikeweb.com>



[그림 6] 출로의 문화가 반영된 Down AKA Kilo의 앨범 표지.
그림출처: <http://www.hiphoppress.com>

시키는 프린트의 파괴에 의한 이미지는 잔인, 비정상성, 섬뜩함, 공포의 충격효과를 유발한다.

문신은 또한 백인 문화에 대한 저항성의 관점에서 활용된다. 고대로부터 문신은 자신의 성적매력의 과시, 신분과 부의 과시, 또는 종교적 주술적 의식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는데, 근대 이후에는 특정 집단의 표식과 전유물로서 인식되며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금기시 되어 왔다. 출로 문신은 의복을 대체하는 신체장식의 또 다른 스타일로 독특하게 신체장식을 연출함으로써 집단의 동질성을 표현하고 백인과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의 배경이 되는 역사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문신으로서 뿐 아니라 프린트로 이용되어 출로 스타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독특한 East LA의 그라피티는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는 뉴욕의 그라피티와 달리 문화와 인종을 근거로 한다. 멕시코 커뮤니티에서 똑바르고 깨끗하게 씌어 진 고딕체의 검정색 글씨는 거의 종교적 수준, 적어도 특정한 중요도를 갖는 전통으로 소통된다. [그림 5]는 멕시코계 출신의 배우 Danny Trejo가 가슴과 팔에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여자의 모습과 고딕체의 글씨로 문신을 한 모습이다. [그림 6]은 2009년에 발매된 Down AKA Kilo의 'Cholo Skate'의 앨범 표지로 출로 스타일의 그라피티, 로우라이더의 자동차, 그리고 성모상 등 출로의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배경으로 문신을 응용한 프린트의 티셔츠를 입고 있다.

대중 매체에 나타난 이러한 출로 스타일의 고스 이미지는 '라틴적인 것'을 명시하는 문화적 상징과 배경이 모두 녹아들어 민족적인 취향을 표현할 뿐 아니라 공포성을 강조하는 현실과 괴리된 기괴한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스포티브 이미지

스포츠 이미지 밝고 경쾌한 스타일로 표현된다.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 분노와 좌절의 현실을 공격성과 현실 도피의 스타일로 표현되는 기존의 출로 스타일과 달리 건강한 정신을 대변하는 캐주얼 스포츠웨어의 형태가 나타난다.

출로 스타일의 진형화 된 아이템들을 활력성 기반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여가수들의 뮤직 비디오에서 주로 보여진다. [그림 7]의 Gwen Stefani의 뮤직비디오 'Hollaback Girl'(2004), Fergie의 뮤직비디오 'London Bridge'(2006)와 'Glamorous'(2006) 등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그림 7] 건강한 신체의 관능성이 강조된 스포티브 패션.
그림 출처: <http://stagevu.com>

반사회적인 갱스터 문화 보다는 화려하게 몸을 장식하고 흥겹게 춤을 추는 라티노의 '카니발(carnival)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듯하다. 조형적 특징은 슬림한 실루엣의 트레이닝 복, 운동복의 변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탱크 탑과 티셔츠의 레이어드, 가벼운 소재의 셔츠, 데님 소재의 재킷과 경쾌한 감각의 체크 무늬 바지, 쇼트 팬츠, 미니스커트, 카고 팬츠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8] 출로 힙합을 영감으로 한 운동복. 그림출처:
<http://rhythmandroots.wordpress.com>



[그림 9] Ed Hardy의 프린트 티셔츠.
그림 출처: <http://collegecandy.com>




색상은 화이트, 블랙, 카키, 브라운, 그레이 등의 기본적인 색상 뿐 아니라 옐로우, 라이트 블루, 핑크, 레드 등 밝은 톤의 다양한 색상이 추가된다. 반다나와 비니를 야구 모자와 믹스 매치하여 함께 착용하는 것과 여러 겹으로 겹쳐 입은 탱크 탑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감각이 중요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은 여전히 정교하고 붉은 색 립스틱이 강조되지만 아이라이너 등의 표현에서 한결 자연스럽게 표현됨이 나타난다. 운동화와 함께 신은 양말은 스트라이프, 아가일(argyle) 패턴 등의 무늬가 들어있어 스포티한 감각을 배가시킨다.

출로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운동복은 브랜드의 로고가 커다랗게 프린트 되거나 요란한 디자인의 금장신구에 집착하는 흑인의 힙합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운동복과 다르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미국의 '건강한 아웃도어 스피릿(healthy outdoor spirit)'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흥적인 리듬과 즉석에서 떠오르는 랩으로 구성되는 캘리포니아 라티노 랩의 급증에서 입증되듯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 라티노들은 주류 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한 패션을 추종하는 것이다. 기존의 출로 스타일에서 이용되던 아이템들은 본래의 스타일 그대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개성을 표현하기 위

한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된다. [그림 8]은 출로 힙합을 영감으로 한 경쾌한 색상과 문양의 운동복으로 각자의 개성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집단성을 강조한 운동복과 차별된다. [그림 9]에서 해골은 공포의 상징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유틸리티 아이콘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더 이상 수동적이고,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위가 변화되기를 기다릴 의사가 없으며, 음악과 시각적 스타일을 통하여 힘을 주장하고자 하는 젊은 라티노 사이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대변한다.

스포티브 이미지의 스타일에서 여성을 의미하는 출라는 남성인 출로 보다 더 중요한 주체로서 나타난다.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에서 출라는 출로의 여자 형제거나 여자 친구로서 출로와 유사한 패션으로 나타나지만, 스포티브 스타일에서는 신체의 노출이 극대화되고 최소화된 디자인의 상의와 미니스커트 등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시선을 강력하게 '몸'으로 집중시킴으로서 유색 여성의 여성성을 재조명하고, 관능성을 강조한다.

Hebdige(1979)에 의하면, 특정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는 계급의식과 세대 의식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부행위이다. 출로 스타일의 폭력적 이미지와 고스 이미지가 계급의식의 표출이었다면, 스포티브 이미지는 라티노의 위상 변화와 함께 차별받는 소수

		폭력적 이미지	고스 이미지	스포티브 이미지
주요 소비주체		남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조형적 특징	주요 아이템	-오버사이즈의 플레이드 셔츠, 라운드 티, 스트라이프 폴로 티, 후드 티, 운동 유니폼 -혈령한 실루엣의 팬츠	-십자가, 악마, 해골, 기도하는 손, 과달루페 성녀, 고딕풍의 글자체가 프린트된 티셔츠, 몸에 딱 맞는 드레스, 브라 탑, 네트 소재 탑 -혈령한 실루엣의 팬츠, 핫 팬츠	-슬림 실루엣의 트레이닝 복, 운동복의 변형, 반팔과 긴팔 티셔츠의 레이어드, 탱크 탑 -카고 팬츠, 체크 무늬의 반바지, 미니 스커트
	색상	카키, 블랙, 블루,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	블랙	화이트, 블랙, 카키, 브라운, 그레이, 옐로우, 블루, 핑크, 레드
	액세서리	-비니, 헤어네트, 반다나 -밀리터리 벨트 -흰 양말, 운동화	-비니, 반다나, -짙은 메이크업과 붉은색 립스틱, 붉은 색의 긴 손톱 -목주 목걸이, 하드 코어풍의 목걸이와 반지 -플랫폼 부츠	-야구 모자, 반다나, 비니 -자연스러운 메이크 업, 붉은 색 립스틱 -다양한 무늬의 운동용 양말, 운동화
내적 의미		노동자 계급성 공격성	공포성 역사성	아웃도어 스피릿 관능성
대표 이미지				

[표 1]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에 따른 조형적 특징과 내적 의미

민족으로서의 계급의식을 극복한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보여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 내용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4. 결론

출로는 스페인계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가 섞인 라틴 아메리카인, 또는 젊은 노동자 계층의 멕시코계 미국인을 의미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하위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치카노, 호미, 홍보이, 라티노, 멕시코계 메스티소, 라 라사 등 다양하며, 이들의 삶의 터전인 바리오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는 1940년대 주트 슈터, 1950년대 파추코 등으로부터 계승 되어, 펑크와 흑인 힙합에 이르기 까지 그 영향력이 방대 하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계 미국인은 19세기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 미국에서 백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라티노의 2/3 이상으로, 미국의 유색 인종 중 흑인 다음으로 높은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매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문화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라티노의 패션에 대한 소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인 오늘날의 패션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그 동안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미국 내 멕시코계의 정체성과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패션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서로 삼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대중 매체에 나타난 출로 스타일의 이미지는 폭력적 이미지, 고스 이미지, 캐주얼 이미지로 분류되었다. 이미지에 따른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폭력적 이미지는 평범한 방법을 통하여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지위와 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출로의 이웃과 바리오에 대한 대안적인 충성심과 결합된 억눌리고 절제된 폭력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패션이 집단적이고 독특한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조형적 특징은 오버 사이즈의 라운드 티, 스트라이프 무늬의 폴로 티, 후드 티, 그리고 맨 위의 단추만 채워 입는 형식의 플레이드 셔츠, 밑위가 길고 바지통이 넓은 헐렁한 실루엣의 배기 바지, 흰색 양말, 딱 맞는 운동화와 검은색 비니, 반다나 등

으로 고급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작업복을 자랑스러운 대상으로 차용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과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공격성을 동시에 내포하였다.

고스 이미지는 '라틴적인 것'을 명시하는 문화적 상징과 배경이 모두 녹아들어 민족적인 취향을 표현할 뿐 아니라 공포성을 강조하는 현실과 괴리된 기괴한 패션으로 주류 사회의 미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클래식에 저항하는 자의식의 반란이자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을 전달한다. 조형적 특징은 십자가, 악마, 해골, 기도하는 손, 과달루페의 성녀, 그리고 고딕풍의 글자체가 문신과 문신을 응용한 문양의 자수, 또는 프린트가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느낌으로 의복에 표현된다. 플랫폼 부츠, 해골, 가시 등을 모티브로 한 하드 코어풍의 장신구 또는 목주 목걸이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로 장식하고, 머릿기름을 발라 넘겨 묶은 헤어, 입술 라인과 눈썹 라인을 강조한 화장, 붉게 바른 긴 손톱 등 페티시적인 요소 등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갱스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적 이미지를 강조한 출로 스타일이 주로 남성의 패션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해 고스 이미지를 강조한 출로 스타일은 여성의 패션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고스 이미지의 패션에서 기괴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티브들은 잠재된 내부의 욕망과 불안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시키는 공포성과 출로의 집단적 동질성을 표현하는 역사성을 내포한다.

스포티브 이미지는 앞의 두 가지 이미지의 스타일이 주로 출로의 인종과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계급의식의 표출이었던 반면, 라티노의 위상 변화와 함께 차별받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계급의식을 극복한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유롭고 경쾌한 스타일이다. 조형적 특징은 슬림한 실루엣의 트레이닝 복, 운동복의 변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탭과 티셔츠, 가벼운 소재의 셔츠, 데님 소재의 재킷과 체크 무늬 바지, 쇼트 팬츠, 미니스커트, 카고 팬츠 등의 자유로운 믹스 매치와 다채롭고 밝은 색상으로 구성되어 출로 스타일의 전형화 된 아이템들을 활력성을 기반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 라티노들의 즐기기 위한 패션으로, 순수하게 미국의 '건강한 아웃도어 스포릿'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한 라틴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색 여성성을 재조명하고 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미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라티노의 하위문화 스타일을 멕시코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사회와 관습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이민자의 '불안한 인생'의 본질과 위험 사이에서 동요하고 극복해 나가는 삶의 본질을 패션 스타일을 통해 시각화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미국적 문화 요소들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새롭게 창출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출로 패션 스타일을 예측케 하는 특성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출로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화 현상과 관련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라티노 패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고운, 장동림, (2006).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고스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2), 77-91.
- 김형인 (2009). 『미국의 정체성: 10가지 코드로 미국을 말한다』. 서울 : 살림.
- 미국 선거 이기려면 히스패닉 표심을 잡아라. (2007.06.11).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이성훈 (2005). 경계의 정체성: 라티노 연구를 위한 시론. 『Foreign Literature Studies』, 20, 199-216.
- 태혜숙 (2009).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미국 문화 읽기』. 서울 : 이후.
- Alaniz, A. & Cornish, M. (2008). *Viva Ra Laza*. Seattle: Red Letter Press.
- Arnold, R.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Berrios, R. (2006). *Cholo Style: homies, homegirls & La Raza*. LA: Feral House.
- Chastanet, F. (2009). *Cholo Writing: Latino Gang Graffiti in Los Angeles*. Årsta(Sweden): Dokument Press.
- Elliotte, J. H. (1991) *The Hispanic World*. 김원중 외 역 (2003). 『히스패닉세계 :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서울 : 새물결.
-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이동연 역 (1998).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 서울 : 현실문화연구.

- Latino Style is Cool. (2001.04).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
- Oboler, S. (1995). *Ethnic Labels, Latino Lives: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Minneapolis/London, Univ. of Minnesota Press.
- Reyes, D. & Waldman, T. (2009). *Land of a Thousand Dances : Chicano Rock 'n' Roll from South California*.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Williams, L. W. (2007). *Estampas De La Raza: Contemporary Prints from the romo Collection*. San Antonio: the McNay.